

## “나, 예뻐?”

(자기애적 성격 장애)

한때 ‘공주병’이라는 신조어(新造語)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자기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만이 가장 예쁜 줄 착각하는 뿐수 같은 행동이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컬음이겠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소년(美少年) 나르시스가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한 나머지 거기 빠져 죽었다 하여 ‘자기에게 반한 상태의 사람’, 또는 ‘자기 밖에 모르고, 무한한 성공 욕에 꽂 차 있는 상태의 사람’을 나르시시스트(Narcissist), 즉 자기애적(自己愛的) 성격 장애 환자라고 한다. 한때 여자 텔런트 치고 썩 빼어난 미모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김 아무개 씨에게 “거울에 비치는 아름다운 내 모습…나는야, 공주라 외로워”라며 ‘공주병 환자’의 연기를 시키자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대중의 공감을 얻었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의 반증(反證)이 아닌가 싶다.

이처럼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기분이나 생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며, 언제나 타인의 관심과 존경을 끌려고 노력하는 탓에 늘 분수에 맞지 않는 의상과 격에 어울리지 않는 취미를 고집한다. 동시에 “나만은 다르다”는 선민의식(選民意識)(?)을 가지고 사는데, 이상하리라 만치 이 고정 관념은 깨어지지 않는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가 진료실을 찾아왔다. 몹시 선정적인 화장과 옷맵시를 하고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를 화려하게 늘어놓는 바람에 “혹시 히스테리 환자가 아닌가”하고 내심 경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런 이야기들을 많이 늘어놓았는데, 그 요지는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지성적(知性的)이며 고상한 생각만 하고 또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만한 미모를 가진 여자가 없는데 왜 남들은 그렇게도 판단력이 없느냐?”는 것이었다.

그 여성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직장에서 가장 예쁜 여자’로 알아주고 있다고 믿고 나름대로는 있는 대로 콧대를 세우고 살았지만, 정작 마음에 품고 있는 사내가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 동료에게 매달리는 것을 보고는 분통이 터져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말 ‘냉정하게 화장 털고 복장 털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니 별로 미모의 여인은 못 되더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또 다른 20대 초반의 아가씨는 클래식 음악에 심취해 있으며 내년쯤 불란서 유학을 갈 예정으로 - 마음속으로만 -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주변으로부터 ‘비위 상하는 아이’로 내몰림을 당하자 분을 참지 못 하고 찾아왔었다.

그녀는 조용필이나 그룹 SES와 같은 ‘속물들의 노래’에 심취한 동료들을 지나칠 만큼 경멸하고 있었다. 모든 옷과 액세서리는 무조건 유명 브랜드만을 고집하였고, 그것이 너무 비싼 경우에는 이태원의 이미테이션이라도 꼭 입어야만 했다. ‘로마의 휴일’, ‘빠리의 마지막 탕고’나 ‘쿠오바디스’와 같은 영화를 보지 않은 친구들하고는 대화조차 하기 싫었다. 비가 오면 그 비를 맞으며 한도 끝도 없이 걸으며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상상에 젖어 있었다.

진료실에서 그녀는 “직장의 상사들이 모두 다 나를 너무나 예뻐하고 좋은 자리로 보내 주고 싶어 하지만 동료들의 질시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탄하며 흐느끼기도 하였다. 그녀는 공장의 기숙사에서 생산직 동료들과 기거하면서도 늘 파리나 비엔나의 음악학교를 꿈꾸며 살고 있었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자신의 학력에 비추어 전혀 가당치 않았던 꿈에 부풀어 있던 그녀는 후일 자살 기도를 하였다. 눈은 올라가다 못 해 뒤통수까지 넘어갔는데 손이 그 눈높이를 못 맞추니(眼高手卑), 괴로움만 주는 세상, 그냥 하직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그 합병증으로 흔히 우울증이 온다. 어떤 경우 “남들이 나를 너무 질시하고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으로 일과성인 편집증이 따라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원인이 “당신이 자신을 잘 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몹시 억울해 하고 부당한 해석이라고 항변한다. 그녀는 그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혼자만의 신데렐라로 세상을 살아간다.